

## 동양선교교회

### 성도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다섯번째 글

**교회에 복귀했을 때 재정부에 33만불있었다.**

**뒤늦게 공개, 이돈 활용했으면 적자 겨우 4만여불**

박제임스(한국명. 박석재)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장로등 6명은 지난 5월 23일 주일에 "성도님에게 알리는 글입니다"라는 1장짜리 글을 주보에다 넣어 교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글의 내용은 지난번 저희들이 보낸 서신가운데 대부분의 사실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해명하지 못한채 겨우 두가지에 대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글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사실무근이며 악성 유언비어,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는 그들쪽입니다.

지난 2월 제직회 때 동결된 자금 150만 달러에 관해 묻자 당시 재정부장이었던 채홍인 장로는 "나는 그 자금에 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이하 모든 상황은 DVD에 담겨져 보관되어있으며 그들이 원하면 제직회나 공동총회에서 어느때건 공개하겠습니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추궁이 거세지자 그들은 "아는바 없다"면서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동결자금 150만 달러에 관해 처음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글에서 교회에 복귀했을 때, 그때 재정부 잔고가 327,865달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액수가 올바른가 아니면 거짓이냐는 두째로 치고 그런 돈이 있었다면 이월금으로 제직회에 보고했어야 합니다. 2월이나 4월의 제직회 등 어느 보고서에도 그 돈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동안 교인들을 속여온 것입니다. 돈이 있었는데 보고를 안 한 것입니다.

#### **은행에서 빼낸 62만 달러 행방묘연**

재정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말 현재까지 우리교회의 예산적자는 37만 789달러로 돼있습니다. 이 적자액을 인수 당시 가지고 있던 돈으로 매꿨다면 우리교회의 모자라는 돈은 겨우 4만2천924달러(370,789-327,865=42,924)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4월 제직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수당시 우리교회은행 잔금은 1백 54만 6천 930달러였는데 3월말 현재 은행 잔고는 1백3만 6천474달러였습니다. 그 사이에 51만 달러를 썼다는 것입니다. 재정부의 돈으로 지불하고 모자라는 4만2천924달러를 적자에 충당했다고 하면 46만 7천532달러가 됩니다. 이 돈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더구나 이 보고서에는 비전헌금이 26만 3천804달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 보고서 첫 페이지에 보면 비전헌금은 변호사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11만 달러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라면 비전헌금은 26만달러가 아니라 11만달러이며 이 액수를 반영하면 우리교회의 3월말 잔고는 88만 6천 474달러가 됩니다. 이 액수로 계산하면 그 사이에 62만 달러의 돈을 은행에서 빼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재정부**

As of March 31, 2010

월	예산		수입		지출		잔액		잔액대비	자기이월	
	잔액	비율	잔액	비율	잔액	비율	잔액	비율			
2월 10년	335,692	154,832	-180,860	46.1%	578,752	26.8%	292,762	615,706	-322,924	47.6%	-149,099
3월 10년	395,615	110,798	-220,601	28.0%	722,989	15.3%	194,538	771,077	-576,539	25.2%	-197,950
TOTAL	731,307	265,631	-401,461	1	1,301,741	20.4%	487,320	1,386,783	-899,463	1	-370,789

  

비전환금 2-3월				비전환금 2-3월				
전기 이월	수입	지출	보유액	전기 이월	수입	지출	보유액	
97,373	이자 연속현금	95 Loan 지불금	28,192	69,276	135,346	이자 변호사	24,738 100,025	110,724
	합계	95	28,192		합계	100,141	124,763	

  

비전환금 2-3월				비전환금 2-3월				
전기 이월	수입	지출	보유액	전기 이월	수입	지출	보유액	
2,101	이자 도서관 Acct	1 3,115	-	5,217	123,600	LIBRARY FUND TCD TCD 이자	123,600	-
	합계	3,115	합계	-	합계	123,600	합계	-

1번은 누적된 재정적자로 3월말 현재 37만789달러로 표기돼있다. 2번은 비전환금 내역으로 용자금과 변호사비 등 12만 4천763달러를 지출 현재 11만 724달러가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3번은 비전환금란인데 2번과 같이 바꿔야하는데 바꾸지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4번은 2009년 10월의 잔고와 3월 현재의 잔고다.(모두 재정부가 제시한 자료다)

OMC 소유 Bank 구좌 및 용도					
일반구좌 (총 3개)		10/31/09 잔액		03/31/10	
일반구좌	1. 새한은행	중앙은행이 Freeze 되고 10-11월간 교회 Payroll 및 운영비	\$58,589	\$14,647	
	2. 웰셔은행	12월 부터 현재까지 교회 각종 운영비로 쓰여짐	\$0	\$78,146	
	3. 중앙은행	Freeze 된 기점으로 입금하지는 못하고 모자란 운영비로 쓰임	\$269,276	\$34,795	
		(Bank statement을 보고 나온 figure)	\$327,865	\$127,589	
저축구좌 (총 9개)		10/31/09 잔액		03/31/10	
(CD, Money Market)	웰셔은행	1. 장학금 CD	\$200,181	\$200,181	
		2. Hope CD	\$12,511	\$12,511	
		3. 발전기금	\$108,054	\$69,276	
	Commonwealth Bank	1. 비전헌금 CD	\$263,451	\$263,604	
		2. Money Market	\$185,656	\$110,724	
	중앙은행	1. 발전기금-CD	\$17,399	\$17,399	
		2. 발전기금 - MMK	\$3,896	\$3,896	
		3. 북한선교	\$48,544	\$50,001	
		4. 선교	\$73,093	\$71,909	
		5. 도서실 Fund	\$123,589	\$0	
			\$1,036,374	\$799,701	
각부서 (총 15개)					
교회 각종부서 Acct	웰셔은행	1. 음악부	\$0	\$3,321	
		1. Payroll Tax	\$3,686	\$10,347	
	중앙은행	2. 나사렛 청년부	\$12,045	\$6,735	
		3. 누가선교	\$3,508	\$3,508	
		4. 열린예배	\$4,811	\$3,942	
		5. 이녹	\$4,167	\$4,638	
		6. His Touch 청년부	\$213	\$213	
		7. 평생학습	\$1,737	\$1,737	
		8. 한글학교	\$23,636	\$18,859	
		9. 열라자베스 미션	새 구좌 3월 Open	\$1,391	
		10. 상락	\$4,866	\$291	
		11. Exchange Acct	\$42,082	\$5,216	
		12. Education	\$24,548	\$9,931	
		13. Mission	\$19,213	\$19,449	
		14. 423 Oxford Apt	\$27,861	\$8,356	
15. 432 Oxford Apt	\$10,317	\$11,250			
			\$182,691	\$109,184	
3월31일 Bank STMT 기준으로 총 은행(27개) 잔액			\$1,546,930	\$1,036,474	
		*선교부 SAGE Acct	\$200,000	\$1,236,474	
10월 총 은행 잔금	현은행 잔고				
\$1,546,930	\$1,036,474				

## 제직회 보고서에 없고 영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정의 시초

### 8만불 입금했다면 왜 제직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가?

동양선교교회 교인 여러분! 재정의 "투명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기전에 미리 밝히고, 빠졌다고 지적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것은 다음 제직회(한 달 뒤)때 밝히겠습니다"는 것은 투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이 투명한 것입니다.

지난 제직회때부터 보고서에는 없고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투명성이 아닙니다. 교회 돈은 누구에게 보여도 괜찮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밀이므로 영상으로 살짝 보고 잊어버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부정의 시초입니다.

다음으로 오후학교(유치원)에서 보내온 10만달러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편지에서도 밝힌바 있습니다. 채홍인 장로는 "날더러 먹었다고 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는 또 "자 바라 은행

에 입금됐다, 여기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말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은행에 입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만 달러 중에 2만달러는 제직회 보고서에 있는데 8만달러에 관한 기록은 지금까지 어느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입금한 기록이 있으면 제직회보고서에 그 기록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제직회보고서에 입금기록이 없으며 물론 지출기록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정이 될 수있으며 또한 투명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8만달러의 수표를 44개의 다른 수표들과 함께 입금했는데 왜 그 45개의 각각의 기록이 없느냐는 점도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재정부 이승래집사 분류과정 실수 인정

이승래집사는 차귀동집사가 “왜 8만달러의 오후학교 기금을 십일조 등 헌금을 입금시키는 구좌에 넣었느냐”는 질문에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것 같은데 그랬다면 정식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정부 장로는 물론 심지어 재정부의 대부로 알려진 한금리장로까지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 입금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대들었습니다. 이승래집사는 공인회계사(CPA) 입니다. 공인회계사가 잘못했다고 시인했는데 재정부 장로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 리교회는 연간규모가 한때는 1천만 달러가 넘었었습니다. 주인땀대로 여기 저기에서 돈을 집어넣는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재정부에는 풀타임직원도 있고 CPA도 있습니다. 규정대로 입금하고 출금하는 깨끗한 재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 수십명씩 여러 날 배치한 시큐리티 사용비용 한푼도 보고 안해 변호비용, 100만달러 넘어, 잘못하면 우리 교회부동산 날릴 수도

재정부이름으로 된 이 글은 또 “시큐리티 가드 비용과 변호사비용에도 터무니 없는 금액의 유언 비어를 만들어 교회 성도님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큐리티 가드 비용을 떼떼하게 공개하지 않는가”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제직회 보고서에 단 한푼의 시큐리티 가드 사용료도 기록하지 않았습니 다. 공짜로 데려다 사용했단 말입니까?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이제 더이상 교인들을 우롱해서는 안됩니다. 무슨일이든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교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주장입니다.

변호사비용의 경우는 지난번에 설명한대로 입니다. 3월9일 칼손 변호사는 공개석상에서 현재까지 못 받은 변호사비가 5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이 부분에 관한 녹음이 있으므로 제직회나 공동회의때 요구하면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커변호사의 남은 변호사비는 25만 달러정도라는 것은 장로들쪽에서 흘러나온 것이며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땅재판을 빼고 교인들과 관련된 재판이 6개에 달합니다. 이들재판은

진행중이어서 하루가 다르게 변호사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들의 현금으로 갚아야 할 변호사비는 1백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결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아닌 심각한 현 상황인 것입니다. 박제임스,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흥인 등 6명의 장로들은 비난의 글을 쓸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교인들에게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물거리다가 그 비용을 갚지 못할 경우, 우리들의 소중한 부동산이 그들에게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교인 여러분들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 박제임스장로 교인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명령 패소 재판장 박제임스장로만 20여분 심문한 뒤 기각결정

지난 5월 21일, 오전 8시 30분, LA지방법원 75호 법정에서는 박제임스장로가 김요한, 이성주 장로와 김대복, 이선관, 차귀동, 배영하, 김광찬집사 등 7명의 교인들을 상대로한 살인 미수로 인한 접근금지명령에 관한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인 박제임스장로와 피고 7명 그리고 원고측과 피고측 증인 각각 2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캐롤 보아스 굿선 재판장은 피고인과 증인들을 재쳐두고 20여분동안 원고인 박제임스만을 심문한 뒤 사건을 기각해버렸습니다. 캐롤 재판장은 “10여분동안 정신을 잃었다고 했는데 그 때 응급차를 불렀었느냐?” “그럼 경찰을 불렀었느냐?” “출동한 경찰이 누구를 체포했었는가?” “체포하지도 않았다면 보고서라도 작성했었느냐?” “그럼 그냥돌아갔는가?” “당신이 그동안 수차례나 경찰을 불러댔는데 그동안에 몇번이나 불렀는가?” “기억이 안난다고 했는데 대충 5번 이상인가?” “상대가 85세의 노인인데 그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단 말인가?” 등 수많은 질문을 했고 박제임스장로는 황설 수설,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사태가 어렵게되자 박제임스장로의 변호사는 지난 5월 16일의 공동총회 내용이 담긴 DVD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자 캐롤 재판장은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회의중에 소리지르는 등 방해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내용이다”고 말하자 캐롤판사는 변호사에게 “박제임스와 몸싸움을 버렸느냐”고 물었고 “그런일은 없다”고 말하자 “회의장에서 소리지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증거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박제임스 장로는 한국인변호사와 미국인 변호사 등 두명을 데리고 왔었는데 캐롤 재판장은 이들 변호사들에게 “원한다면 피고들과 증인들의 심문을 하겠다. 그러나 시간 낭비일뿐이다. 이미 나는 기각으로 결정했다.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었으며 박제임스장로의 변호사는 “원고와 나가서 상의하고 오겠다”고 한 뒤 나갔습니다. 한참만에 돌아온 변호사는 “판사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답변, 재판은 박제임스장로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사무실에 찾아온 교인들과 벌인 한 순간의 다툼을 “나를 죽이려했다, 숨을 못쉬고 기절했었다”는 주장으로 7명의 교인들을 “살인미수범”으로 몰아 교회에서 쫓아내려던 박제임스장로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을 위해 박제임스장로가 사용한 상당액수의 변호사비를 교인 여러분이 고스란히 책임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번재판의 변호사비는 적어도 몇만달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제임스장로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또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인 여러분이 어려움속에서 정성스럽게 낸 현금, 그 현금이 하나님에게 바쳐지자마자 변호사비로 지불되리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 교인과 장로들관련 소송만 6개 현재 계류중 소송으로 이긴 장로들 소송으로 교회치리 중

지금 현재 계류중인 장로들과 관련된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제임스장로가 패소한 7명의 교인들의 교회 접근 금지소송과는 별도로 18명의 교인들을 영구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하는 소송, 박제임스 장로가 안준이권사를 채포토록 경찰에 의뢰했으나 무혐의로 풀려난 사건과 관련된 민사 및 형사소송, 박환장로가 이성주장로를 발로 걷어차 뼈가 부러지는 13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 10여명의 권사와 집사들에게 위협을 가한 사건 등 모두 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교회가 당회장장과 교인들간에 6건이나 되는 소송을 일시에 하고 있거나 한 일이 있습니까? 박제임스,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6명의 장로들은 재판으로 강목사를 쫓아낸 뒤에 무엇이든지 재판으로 해결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6명의 장로들은 심지어 개인에 관련된 소송도 교회일과 관련이 있다면서 모두 그 변호사비를 교회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들 6명의 장로들은 지금, 교회가 망하거나 말거나,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거나 말거나, 헌금이 줄어들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교인들이 내는 헌금이 있고 우리를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 많아 은행들이 대출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돈이 있으니까 재판이 길어지면 우리가 이기게 돼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모든 책임을 우리들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국가가 잘못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집니다. 직원 하나가 잘못해서 일이 커지면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6명의 장로들은 기회있을때마다. “우리교회를 치리하는 기구는 당회다”고 주장합니다. 한꺼번에 6개의 소송이 걸려있고 제직회나 공동총회한번 제대로 진행하진 못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들 6명의 장로들은 무슨일이 있을때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20-30명의 시큐리티 가드를 불러드립니다.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꼴이 어떻습니까? 그 꼴이 바로 우리교회의 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장로들은 우리 교회를 이지경으로 몰고왔는데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잘못이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 동양선교교회 성도여러분

우리는 소송하는 교회가 싫습니다. 맨날 싸움만 하는 교회도 싫습니다. 제직회나 공동총회를 진행하지 못하는 교회도 싫습니다. 책임을 지지않는 당회도 싫습니다. 대예배시간에 기도하면서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심지어 우리교회의 창립자이며 현재 원로목사인 임동선목사를 영원히 우리교회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런 장로는 정말 싫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질줄 아는 장로님들을 원합니다. 잘못이 있어도 감싸주는 넓은 마음의 장로님들을 원합니다. 집사들과 싸우지 않는 장로님들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계시는 장로님들을 원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참으로

존경받는 장로님들을 원합니다.

교인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성도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 전 교인들에게 여러차례 배부되고 큰 파장이 일자,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예배시간에 사회자를 동원, "배달된 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혹되지 말라"는 등 당황해 하면서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난 주에는 "성도님에게 알리는 글입니다"라는 글을 주보에다 넣어 교인들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글의 모든 내용은 철저한 사실검증을 마친뒤 게재한 것입니다. 만일에 의문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분 또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 계신분은 213-703-5700이나 213-820-855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